

부활절 메시지

청교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어머니 배속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 밖에 없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신의 죽음만 있을 뿐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삯인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 있는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육체의 죽음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니가 우리가 덤덤히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도 해역에서 침몰된 여객선 사고 때문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 속, 사랑하는 자녀가 그 속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모들은 오열하고, 분노하고, 실신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너무도 큰 아픔이며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왔던 사망은 완전히 정복되어서, 더 이상은 육체의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이제 곧 도래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며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마리아들의 두려울 정도의 감격과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오늘 영어 예배와 에바다부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 Ⅲ, Ⅳ 층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Ⅲ 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Ⅱ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에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7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801 호	
토요꿈나무영어성품스쿨		학기중 토 9:30-12:30	701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가족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1시30분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2부		오후 1시30분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신혼가정공동체		오후 3시20분	102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 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진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전도담당전도사 배재경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정경호 천세종		
교육전도사 최민혁 구본태 장재원 양세라 정대은 Gaichuang Panmei, Vung Zam Cing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현 김다니엘	
선 교 사 강아급주현나, 권요셉·조에스더,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해,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인(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실일·민배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해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한미순(일본), 김평·강희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전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탕,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썬, 찐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렐(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어린 나귀를 타신 우리의 왕” ("Our King on a Colt")

■ 막 11:1-10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앞두고 오늘과 같은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어른이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히 좋은 탈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에 타셨을 때, 발은 거의 땅에 닿 것 같았고, 어린 나귀는 뒤뚱거리며 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 어린 나귀인데, 예수님은 왜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1.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 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나라” 라고 말씀하 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탄생하시기 530년 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루살렘 온 백성 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530년 전에 선포된 이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은 놀랍게도 모두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십니까? 우리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2.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 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셨습 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가정에 서 겸손함으로 가족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겸손함으로 동료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 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빈자리에 잠깐씩 앉는 자들에게라도 겸손의 모범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 시길 소원합니다.

3.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시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유독 “짐을 지셨다” 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사가 53장 4 절과 6절에도 지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세례 요한의 증언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짐을 지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짐 은 아랫사람들이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주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 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짐이 아니라 각종 근심의 무거운 짐, 죄와 죄책감의 짐, 인생의 우울함 과 두려움의 짐, 인생의 조롱과 멸시의 짐, 인생의 모든 생활고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 님은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이런 예수님의 이름다운 초대에 여러분들 모두가 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 의 짐과 인생의 짐을 다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마치 울무를 빠져나온 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 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